

2001년 새해를 맞이하여...



후 巳年 새해를 맞이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흑한의 전선에서 국토 방위에 전념하고 있는 국군 장병과 산업현장에서 자주국방의 기틀을 마련하고 있을 방산업체 임직원 그리고 애독자 여러분의 가정에 祝福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 천년의 시작이었던 지난 2000년은 우리에게 뜻 깊은 한 해였습니다. 꿈으로만 여겨졌던 남북정상회담이 김대중 대통령의 북한 방문을 통해 기대 이상의 성공을 거두어 남북 장관급 회담과 경제협력, 이산가족 상봉으로 이어졌고 북한은 최근 전방위·실리위주의 대서방 외교활동을 통해 국제 무대 진출노력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불확실한 안보 상황은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김정일 정권은 북한 동포들이 극심한 식량난으로 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도 러시아로부터 최신 전투기를 도입하는 등 군사력 증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반도를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4강들은 자국의 이해에 따라 각기 쌍무 및 다자간 전략적 관계를 모색하는 등 새로운 안보질서를 형성하면서 군비증강을 통해 그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국방부는 국방목표인 외부의 군사적 위협과 침략으로부터 국가를 보위하고 평화통일을 뒷받침하며 지역의 안정과 세계평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첨단 무기로 무장된 정보·과학군으로서의 작지만 강한 군대로 발전하겠다는 장기 발전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辛巳年에 月刊〈國防과 技術〉은 우리 군이 추구하고 있는 미래의 정보·과학군이 무장할 고도의 첨단무기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장병들의 과학적사고와 지식을 구비하는데 일조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잡지의 내용과 질을 한단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또한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미래의 정보·과학군이 요구하는 첨단무기를 우리 손으로 만든 무기로 무장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형 방위산업으로 발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자 합니다.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발전과 月刊〈國防과 技術〉의 발행에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에도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기쁨이 충만하고 뜻하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기를 바랍니다.

2001년 1월 1일

韓國防衛産業振興會 會長 沈 利 澤